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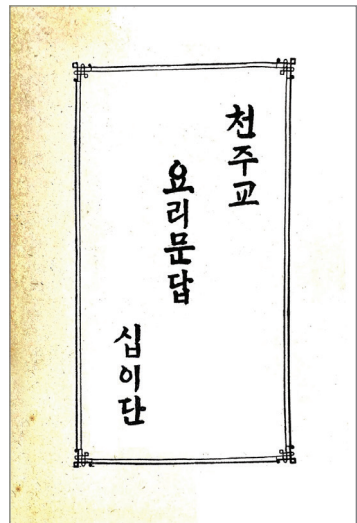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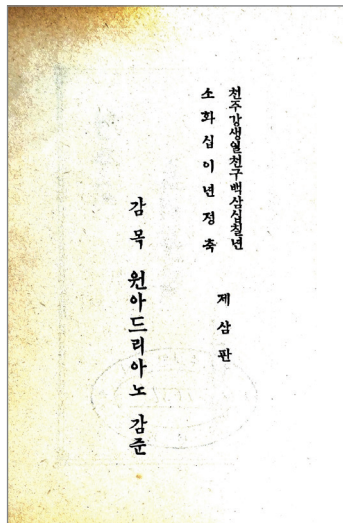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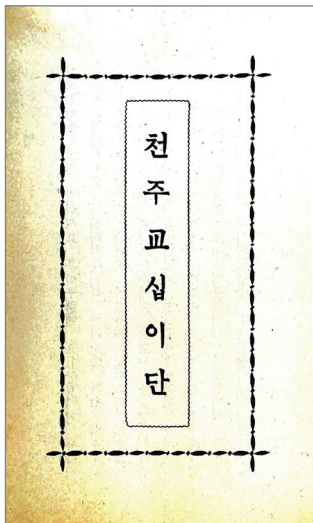
‘십이단’(十二端, 주요 기도)에 수록된 기도문 소개 (5)

- 예전 십이단 기도문, 『턴주성교공과』와 『턴주성교십이단』의 대조 -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하여 국가에 의해 금압(禁壓, 금지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익혀야 하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현재에 사용되는 『가톨릭 기도서』 제1편과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부록에 실린 ‘주요 기도’는 ‘십이단’ 기도문이 수정·추가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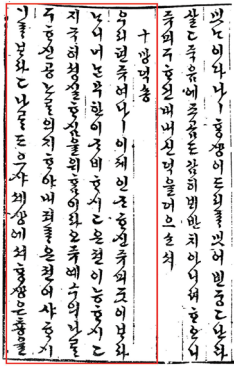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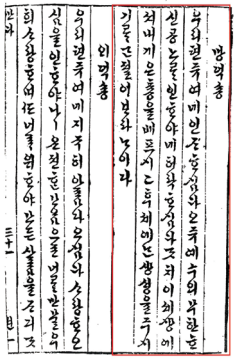
‘십이단’이 언급된 기록은 교회 측 자료[신자들의 증언록, 선교사제의 서한]와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에서 확인됩니다. 신자들은 가족, 회장 등에게 ‘십이단’을 배워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전파할 때 교리(문답)와 ‘십이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관아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십이단’ 등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십이단’과 관련된 신자들의 기록을 지난 상교우서 3월호(118호)부터 7월호(122호)까지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회서적에 나오는 ‘십이단’ 기도문은 1860년대부터 확인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현재의 ‘주요 기도’와 비교해 보면 용어와 표현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기도문의 순서도 다르고, 기도문이 빠지거나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저번 8월호부터 ‘십이단’에 수록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턴주성교공과』(1862년)와 『턴주성교십이단』(1886년)을 비교하면서 현재 기도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봉헌경[현재 ‘봉헌 기도’]을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천주교요리문답십이단』 활판양장본 (1937년 제3판) *‘요리문답’과 ‘십이단’의 합본[두 책을 하나로 묶음]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삼덕송 중 망덕송 [현재 삼덕송 중 망덕송]

<p>뎨쥬성교공과 (1862년) / 뎨쥬성교십이단 (1886년)</p>	<p>뎨쥬성교공과 1권 '망덕송' - 원문(위), 약식(아래)</p>
<p>망덕송 우리 뎨쥬여 나 이제 인즈흠신 쥬피 굿이 브라느니 너는 무한이 즈비 흐시고 온전이 능히시고 지극히 성실흠심을 위흠이다. 오쥬 예수의 나 를 구흠신 공로를 의지하야 내 죄를 온전이 사흐시기를 브라고 나를 도 으샤 세상에서 흥상 은총을 받게 흐시고 스후에는 너 선을 행흐 자의 게 허락하야 계심과 갓치 뎨당에 오르게 흐심을 브라느이다. 나 이제 뜻을 세워 너 허락흠신 바를 엿기를 위하야 네 도으심으로 선을 행흐 기를 원흐오니 구흐건대 쥬는 내 망덕을 더으쇼셔.</p>	
<p>● 망덕송 우리 뎨쥬여 네 인즈 흠심과 오쥬 예수의 무한흠신 공로를 인흐야 네 허 락흠심과 갓치 이 세상에서 내게 은총을 베프시고 후세에는 상심을 쥬 시기를 곤절이 브라느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과에는 제목 앞의 '十'(십이단) 표시가 긴 '망덕송'에는 있고, 짧은 '망덕송'에는 없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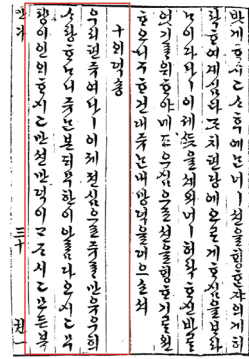
* 『뎨쥬성교공과』에는 본래의 ‘삼덕송[망덕송]’ 외에 또 다른 ‘삼덕송[망덕송]’이 실려 있습니다. ‘적은[작은] 삼덕송’이라 불리는 이 삼덕송은 분량이 본래의 삼덕송보다 짧은데, 현재 사용하는 ‘삼덕송’의 원형이 됩니다. 1931년 ‘한국 주교회회’에서 개편된 ‘십이단’ 기도문[1934년 이후 간행]부터는 간략한 ‘삼덕송’이 원래 ‘삼덕송’ 대신 실리게 됩니다. 1966년 ‘십이단’에서 ‘주요 기도문’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간략한 ‘삼덕송’이 계속 실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천주성교공과』에서는 ‘삼덕송’ 두 가지가 모두 실리다가 1968년 『가톨릭 기도서』(주요 기도문)부터는 (약식) ‘삼덕송’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도문] 삼덕송 중 망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삼덕송 중 애덕송 [현재 삼덕송 중 애덕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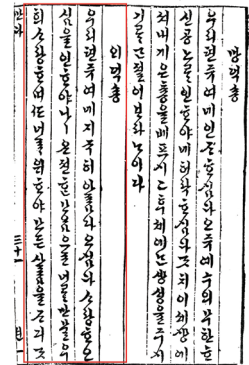
이덕송

우리 현주여 나 | 이제 전심으로 주를 만유우회 사랑하느니 주는 본디 무한이 아름다오시고 무량히 인이하시고 만선만덕이 그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샤 지극히 공경하고 사랑호신 주 | 심을 인함이오 또 너를 위하야 사름을 사랑하기를 그치고치 하느이다. 주괴구하느니 내 이덕을 더오쇼셔.



● 이덕송

우리 현주여 네 지극히 아름다오심과 사랑호심을 인하야 나 | 온전한 마음으로 너를 만물우회 사랑하며 또 너를 위하야 모든 사름을 그치고치 사랑하느이다.



*공과에는 제목 앞의 '十'(십이단) 표시가 긴 '애덕송'에는 있고, 짧은 '애덕송'에는 없음

*『현주성교공과』에는 본래의 '삼덕송[애덕송]' 외에 '적은[작은] 삼덕송[애덕송]'이 실려 있습니다. 삼덕송[애덕송]보다 짧은데, 현재 사용하는 '삼덕송[애덕송]'의 원형이 됩니다.

[현재 기도문] 삼덕송 중 애덕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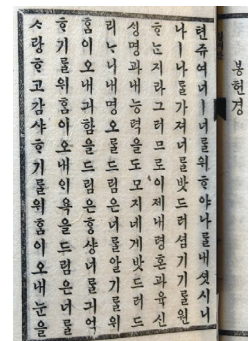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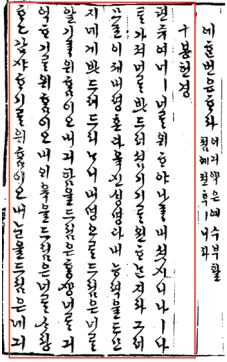
예전 십이단 기도문 - 봉헌경 [현재 봉헌 기도]

봉헌경

현주여 너 | 너를 위하야 나를 내셨시나 | 나를 가져 너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령훈과 육신 심명과 내 능력을 도모지

네게 받들어 드리느니 내 명으로 드림은 너를 알기를 위함이오 내 고통을 드림은 흥상 너를 기억하기를 위함이오 내 이익을 드림은 너를 사랑하고 감사하기를 위함이오 내 눈을 드림은 네 고퍃한 공부 보기를 위함이오 내 귀를 드림은 네 도리 드림을 위함이오 내 혀를 드림은



턴주성교공과 (1862년) / 턴주성교십이단 (1886년)	'십이단'(위)과 '공과'(아래) '봉헌경'
<p>네 거룩한 일흠을 찬송함을 위함시오 내 소리를 드림은 네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를 위함시오 내 손을 드림은 갖가지 선공하기를 위함시오 내 발을 드림은 텨당 좁은 길노 뎃기를 위함이니 므릇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과 내 몸의 행위와 나의 맛나는 고로움과 밧는 바 경천히 녀키며 림육함과 내 심명에 잇는 바 년월일시와 내 심스 회복을 도모지</p> <p>네게 밧들어 드려 일절 네 영광에 도라가기를 근절이 부라며 턴주성의를 합하고 턴주의 명을 순히 하고 도모지 나와 모든 사름의 경흔구름에 유익하기를 지극히 원하노이다. 우리 턴주여 죄인이 죄가 크고 악이 중하야 드리는 바 당치 못하오나 네 불상이 녀키심을 부라고 네 인스 허심을 의지하야 비누나 니 드리는 거슬 밧아드리소서. 아멘</p>	 <p>*공과에는 제목 앞의 '十'(십이단) 표시가 있음</p>

- * '봉헌경'이 나오는 순서는 『턴주성교공과』와 『턴주성교십이단』이 서로 다릅니다. '십이단'에는 13번째에 나오지만, '공과'에서는 십자 표시 기도로는 8번째[삼종기도를 포함하면 9번째]에 나옵니다.
- ** '봉헌경'은 위와 같이 길었는데, 1955년 이후에는 기도할 때 “네게 받들어 드리오니 ... 생사회복을 도무지” 부분을 임의로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6년 7월 2일 한국 주교회의에서 '십이단'을 '주요 기도문'[현재의 '주요 기도']으로 개칭하면서 기도문 내용과 편제를 개편했고, 이때 '봉헌경'도 '봉헌의 기도'[나중에 '봉헌 기도']로 간략하게 바뀌었습니다. 개편된 '봉헌의 기도'는 1968년판 『가톨릭기도서』에 실렸고, 일부 표현이 바뀌면서 현재의 '봉헌 기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문] 봉헌 기도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아멘.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후원회원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올해부터 종이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던 회원님께서서는 연구소로 연락주십시오. (주민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제공해 주셔야, 홈택스에서 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